



야생멧돼지 오인 총기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농업인 안전수칙

국민안전처
정국영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야생멧돼지 포획 시 사람(농민, 업사 등)을 야생멧돼지로 오인하여 총기 인명사고가 해마다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총기 사고는 51건으로 13명이 숨졌고, 업종에 의한 사고가 74%로 가장 많았음(KBS보도, '24.7.10)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의 행동 수칙을 지켜주세요

01 일몰 후 숲이 우거진 산간 지역에서
농작업은 가급적 자제해 주세요



부득이한 경우 밝은 옷을 입고
빛 반사조끼 또는 X밴드 등
안전장구를 착용해 주세요

02

03 총기 포획 소리가 들릴 경우
손전등, 목소리 등을 통해
수렵인이 포획을 멈추도록 해주세요



시군에서 안내(SNS, 현수막 등)하는
총기 포획 기간에는
산간지역 출입을 자제해 주세요

04

05 농작업 등이 빈번히 이뤄지는 지역에는
총기 사용에 주의를 요하는
현수막·표지판 등을 게시·설치해 주세요



〈행 동 요 령〉

- 절대 정숙 할 것
- 소리치거나 움직이지 말고 쳐다보지 말 것
 - 멧돼지를 흥분시켜서는 안 됨
- 등을 보이지 말 것
- 나무나 바위, 우산을 펴고 뒤로 숨을 것
 - 후각에 비해 시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 임
- 교미기간 중(11~12월)에는 성질이 난폭해져 더욱 유의 할 것

■ 서로 주시하는 경우에는 뛰거나 소리 지르기보다는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멧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뛰거나 소리치면 멧돼지가 오히려 놀라 공격한다)

■ 멧돼지를 보고 소리를 지르거나 달아나려고 등(뒷면)을 보이는 등 겁먹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이 경우 야생동물은 직감적으로 겁을 먹은 것으로 알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 멧돼지에게 해를 입히기 위한 행동을 절대해서는 안 된다.

■ 멧돼지는 적에게 공격을 받거나 놀란 상태에서는 흥분하여 움직이는 물체나 사람에게 저돌적으로 달려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주위의 나무, 바위 등 은폐물에 몸을 신속하게 피한다.